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

롬 8:3~8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善)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惡)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육체의 욕망이 내 지체 속에 나타나서 내 마음의 선한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엔 이 싸움에서 언제나 악이 득세를 합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원치 않는 검은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지 않을 때, 이 악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힘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 - 율법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 악의 법,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지라도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이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4절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7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

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받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더욱 목이 마른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질 수 없고, 보면서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여기에 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헤엄을 잘 치면 한강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현해탄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 율법의 완성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케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은 우리를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의 마침’이라

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율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룰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혀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DMZ에서 한 북한 병사가 귀순을 해 왔다고 합시다. 북한 땅에 있는 동안에 그는 북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에는 그 세력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필사의 노력을 해서 DMZ를 넘었다고 합시다. 바로 그 순간, 북한의 모든 힘은 이 사람에게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가 무의미합니다. 실패나 좌절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율법을 완성한 것처럼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각 씻어버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육신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항상 우세했습니다. 악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나를 지배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선한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본능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공짜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년이 흘러가도 좋아지지 않던 사람이, 이제부터 10년이 지나면 기적처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을 좇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영을 좇는 사람'입니다. 전자를 가리켜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4시간 동안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예배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일에 얽매어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혼자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망의 그림자가 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을 좇는 사람, 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 영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 고통, 한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과인 평화를 영을 좇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

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성숙해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술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명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을 좇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림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사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갈등을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받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오늘 먹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겠습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의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죄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축복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v.com>